할수록 능력인 주기도

(마태복음 6:5~10)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할수록 능력인 주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할수록 능력인 주기도'
주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지금 주어져있는 삶을 고군분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세상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를 하지 않고는 복음이 약속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0절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주기도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실제로 이 구절을 통해 약속된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이 되면 세배를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손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결혼해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까지 세뱃돈을 주십니다. 손자들이 어렸을 때에는 세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초등학교만 가도 세뱃돈 받는 맛에 세배를 하지만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억지로 세배를 시키고 세뱃돈을 쥐어주십니다. 주기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뱃돈을 준비해두셨으니 빨리 세배하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주기도의 첫째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철학적이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삶은 이름과 존재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 항상 마음에서 이름을 붙잡습니다. 이름을 붙잡는 이유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재를 손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으로 붙잡은 이름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 사이의 간격을 없애

기 위한 과정이 인간의 삶입니다.
한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존재는 하늘에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실제로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가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주기도로 선언하셨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이름을 마음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살아갑니다. 또는 자녀의 형통이라는 이름을 마음에서 붙잡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자녀를 이끌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실제로 하나님을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이 죽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가졌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대체 무엇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가르쳐주신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갖는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건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갖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주권적인 다스리심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중에 땅에 대해서도 창조주로써 주권을 발휘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갖는다는 것은 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늘나라를 함께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의 관계만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 배우자의 가족들이 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늘나라를 우리도 소유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써 섭리하심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계획대로만 진행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늘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을 해석함에 있어서 학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이 땅의 상황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유토피아적 사회상이 펼쳐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서 흔하게 발견되었던 성향입니다.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제도를 바꿈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자는 식으로 사회개혁운동으로 투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만 쏙 빠져 나오시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를 함께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체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이 그러한 하늘나라의 상태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차원에서 즐겁고 기뻐진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과 현실의 차이점에 따라서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실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상상은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꿈과 이상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실현되어 현실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실들이 현실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주어서 하나가 된 사실만이 나의 현실로서 작용합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사실로써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들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하늘나라도 사실로써 존재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먼 외국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 닿아야만 합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다음에나 갈 곳으로 여기던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와 닿을 때에 비로소 나의 현실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릉에 살고 있는 저에게 호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천국이 이러한 사실로만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인들에게 천국이 사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은 사실을 현실로 느끼게끔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유토피아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내용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로 존재하는 천국을 나의 마음에서 현실로 느끼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현실이 된 대표적인 예가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천국을 현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밧모 섬에 유배당했을 때에 계시를 통해서 천국을 현실로 느끼고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천국을 현실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도 이와 같이 천국이 현실이 되는 상황이 바로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의 재정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차이는 생겨납니다. 우리가 기도와 관련하여 자주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나의 상태를 알고 계신다면 이러한 기도는 크게 잘못된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재정상황을 나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신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오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계신 내용을 번복하여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부터 내게 다가온 재정적인 압박은 현실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단 재정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일체로 계신 천국이 나의 우선적인 현실이지, 나의 건강상태는 나의 현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방인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마음의 첫 번째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상황도 마음에서 현실로 느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현실로 삼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뿐입니다.
에녹이 들림을 받았고,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 천국이 우리 마음에서도 현실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이 천국은 유토피아적인 사회상도 아니며 막연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추상적 장소도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로써 존재하는 그 천국이 바로 무엇보다 우선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세뱃돈을 준비해놓으신 하나님께 세배를 하라는 요청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세뱃돈으로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배하지 않는다면 세뱃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를 가르쳐주심을 통해 하

나님께 드리는 세배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를 초대교회를 통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유무상통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피 같은 돈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마음에서 하늘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땅에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신 그 하늘, 하나님의 보좌와 천군천사가 있는 그 하늘,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회의할 수 있는 그 하늘, 에녹과 엘리야가 올라간 그 하늘을 땅에 살면서도 현실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피 같은 돈이 더 이상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돈은 있는 자에게서 없는 자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들이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300년간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대로 이들의 마음에서 천국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실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현실로 느꼈던 것은 천국이었고 로마의 박해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느끼는 현실이 행복하면 나머지 현실들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기도가 주는 능력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천국이 이 세상 상황을 이기게 해줍니다. 마음에서 천국을 첫 번째 현실로 삼게 해주는 기도가 주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천국을 오해했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현실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현실감을 세뱃돈으로 준비하시고 주기도라는 세배를 하라고 요청하셨지만 우리는 주기도를 등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린답시고 세상이 현실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재정적 압박이 느껴지면 그 상태에 사로잡혀서 마음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방인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심정으로 낫기만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재정 문제도 아시고 무슨 병이 났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해주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천국을 현실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상황만을 현실로 믿으며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에 문제가 생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천국이 현실로 느껴지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고통이 올 때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 마음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 때에 천국을 함께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에서는 하늘이 내려오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물리적인 차원에서 멀리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천국으로 가셨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나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감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하셨을 뿐이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는 것은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천국이 만나야 하고 천국을 현실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생생하게 내 마음에 느껴지는 이 세상의 상황들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현실로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생각과 언어는 오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현실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성령님에 대해 말하고 구원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이 오류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이 현실로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는 상황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천국을 임하게 하고 천국을 현실로 느끼게끔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천국이 현실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인격체로써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현실로 느끼는 동안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장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은 이방인들은 결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 삼으시고 나의 마음에서는 천국을 현실로 느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여러 사건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와 찬양을 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지진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들이 바랐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현실로 사는 자들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모세를 예로 들어봅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하부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바로의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명령하시면 계획대로 따르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와 대면하게 하십니다. 광야 사십 년 동안도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힘으로 백성들을 먹일 수도 없었고 입힐 수도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사십 년간 백성들을 광야에서 맴돌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애굽의 바로보다 더 우선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마음에 소원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랬습니다. 광야 사십 년 생활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인 현실로 느끼고자 했을 뿐입니다. 모세의 마음 안에서 천국이 세상을 이기고 1등 현실로 다가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스리심의 연장선상에서 이 땅에 대한 역사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려지는 주기도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주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서 천국이 세상의 상황을 이기고 현실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돈 없는 상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돈 없는 상황을 현실로 여기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천국이 내 마음에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천국은 돈 없는 상황을 이기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현실로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나면 삶에서는 천국의 확장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천국에서 일어나듯이 그 다스리심이 이 땅에서 번져나가게 됩니다. 나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모세가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끌고 다닐 때에 모세 힘으로 한 일이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갔고 서라고 하시면 섰습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하시면 바위를 쳤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먹었습니다. 모세는 계속 마음에서 천국을 우선적인 현실이 되도록 유지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경계가 이 땅으로 넓어지면서 250만 명을 먹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필요로 하셨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의 상황보다 더 우선적으로 천국을 현실로 느껴야 될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현실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천군천사가 계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과 함께 회의를 하고, 엘리야와 에녹이 불병거와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그 하늘이 현실감으로 느껴지도록 기도한다면 천국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에게 세뱃돈을 준비하고 계신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살아지게 됩니다.
천국을 현실로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도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만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만 바라게 됩니다. 십자가로 드리는 주기도가 능력인 이유는 내 마음에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천국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이 세상의 상황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현실로 느낄 때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계속 살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바보 중의 바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기도가 제2의 복음이 아닐까요? 첫째 구절과 둘째 구절을 붙잡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하면 더 이상 필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기도에 우리 기도생활의 전부를 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천국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지는 은총을 우리 모두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